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 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 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A]
 [B]
 [C]
 [D]
 [E]

(나)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山脈)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 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여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광야」-

(다)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너 커서 뭐가 될래?”
 내 꿈은 계절마다 바뀌어서,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까지 가장 오래 간직했던 꿈은, 부끄럽지만 피아니스트였다. 피아니스트의 삶이 어떤 건지는 잘 몰랐지만 나는 그저 피아노가 좋았다. 피아노를 ‘잘 쳐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좋아했다.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은 이상하게도 잘 기억나

지 않는데, 꿈의 불꽃이 사그라지던 순간은 정확히 기억난다.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이모와 수다를 떨다가, 내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는 것이 부모님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조속한 척만 했지 전혀 철들지 못했던 초등학생에게 이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도 나는 꿈을 여러 번 포기했다. 때로는 성적이 모자라서,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때로는 그저 꿈만 꾸는 것이 싫증 나서 수도 없이 꿈을 포기했다. 내 꿈의 역사는 ‘포기의 역사’였다. 그런데 그 수많은 꿈을 포기하며 살아가다 보니,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나의 진짜 문제를 알게 되었다. 실패가 두려워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전을 해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아무리 이모의 말이 충격적이었더라도, 내가 피아노를 좀 더 뜨겁게 사랑했다면, 좀 더 세상과 싸워 볼 용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나는 달걀을 바위로 치는 심정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며 처절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질투하고 존경한다.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포기의 역사보다는 실패의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을. 제대로 부딪쳐 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는 것 보다는, 멋지게 도전하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꿈을 이루는 데 실패하더라도,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님을.

얼마 전 내 소중한 벗이 불쑥 물었다. “넌 왜 그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적당히 둘러대긴 했지만, 그 말이 오랫동안 아팠다. 가슴에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박힌 것처럼, 시리게 아팠다. 내 삶의 치명적인 허점을 건드리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를 오래 알아 온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내 아픔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피아노를 포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포기하는 버릇’을 가슴 깊이 내면화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도전하기 전에, 미리 온갖 잔머리를 굴려 내 인생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고, 안 되겠구나 싶어 지레 포기하는 것.

-정여울, 「그때 알았다더라면 좋았을 것들」-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동일한 어미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다)와 달리, (나)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세태에 대하여 지닌 인식을 밝히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는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며 과거 자신의 행적을 성찰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모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가)는 과거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다)는 자랑스러운 과거를 통해 삶의 원동력을 얻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자신이 살아온 삶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가)와 (다)는 모두 부정적으로, (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3.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아주 오랜 세월’ 후에 ‘책갈피’가 ‘이 종이’를 떨어뜨리라고 한 데서, 미래의 시점을 가정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화자가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성찰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② [B]: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나 이를 ‘어리석’게 생각한 데서, 지난 짧은 날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많은 것을 이뤘으나 실속이 없었던 과거를 참회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③ [C]: 미래의 시점의 화자는 자신이 가진 것이 ‘탄식’밖에 없음에 지난날의 성취가 무용했음이 드러나며, 과거의 회상을 통해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반성이 드러난다.
- ④ [D]: 누구도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데서 타인에게 관대했던 과거에 대한 긍정이, ‘희망의 내용이 질투’였다는 데서 자신이 행한 일이 타인에 대한 질시였다는 반성이 드러난다.
- ⑤ [E]: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그러한 인식은 스스로를 인정해야겠다는 화자의 반성적 태도로 이어짐이 드러난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속죄양 모티프란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형으로 희생했던 예수의 삶에서 기인한 모티프로, 속죄양 모티프에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인류나 민족을 구원하려는 행위나 의식이 드러난다. 이육사의 「광야」에서는 ‘우리 민족이 새로운 역사를 세울 터전’으로 표상되는 공간인 광야에서 당대 광복을 위한 이육사의 의지와 염원이 드러나는데, 이는 속죄양 모티프와 함께 드러나기도 한다.

- ①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다는 데서, 우리 민족이 새로운 역사를 세울 터전으로 표상되는 공간인 광야가 창조되는 모습과 광야가 지닌 신성함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산맥’들이 ‘바다’를 ‘휘달릴’ 때에도 ‘이곳을 뻗’하지 못하였다는 데서, 불가침의 공간인 광야의 광활함과 신성함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 이육사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겠군.
- ③ ‘눈 내리’는 암담한 상황에서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는 데서, 일제 강점기 당시 조국의 광복을 위한 이육사의 자기희생의 의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백마’ 타는 ‘초인’의 존재는 ‘천고의 뒤’에 온다는 데서, 독립의 열망이 단념되고, ‘초인’을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하는 상황에서, 독립의 의지와 염원이 회복됐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눈 내리’는 날에 ‘매화 향기’가 아득하다는 데서, 이육사의 고고한 정신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는 데서, 이육사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군.

25. 내 꿈을 중심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등학교 시절에 ‘나’는 피아노를 잘 쳤기에 피아니스트의 꿈을 가장 오래 간직한다.
- ② ‘나’의 꿈은 계절마다 바뀌었기에, 따라서 ‘나’는 ‘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과 ‘꿈의 불꽃이 사그라지던 순간’ 모두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
- ③ ‘나’는 멋지게 도전하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깨달았고, 초등학교 시절에 ‘세상’과 싸울 용기가 없어 ‘꿈’을 포기한 것을 한탄한다.
- ④ ‘나’의 벗은 ‘나’에게 ‘나’가 ‘자신감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이후 ‘나’의 벗의 질문은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져 결국 ‘나’는 ‘꿈’을 꾸는 것에 ‘싫증이 나’게 된다.
- ⑤ ‘나’는 그 이후로 ‘꿈’을 꾸는 데 있어서 ‘성적’, 타인의 ‘평가’ 등의 외적 요인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따라서 ‘포기의 역사’가 ‘실패의 역사’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다)에는 주체가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 이는 과거를 회상하여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성찰하거나 후회하고, 깨달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 ① (가)에서는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운 자신의 행적을 돌아보며,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② (다)에서는 초등학교 시절에 성숙했던 ‘나’가 자신의 꿈인 ‘피아니스트’가 집안에 부담이 될 것을 자각하고서 포기했던 것을 이후 성인이 된 ‘나’가 후회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③ (가)에서는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린 자신이 ‘가진 것’이 ‘탄식 밖에 없’다는 데서, 지난 날의 자신의 잘못을 후회한다는 인식을, (다)에서는 자신의 외적 요인에 따라 꿈을 포기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④ (가)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데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는 인식을, (다)에서는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꿈을 이루는 데 실패’해도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⑤ (가)에서는 ‘짧은 글’을 남겨둔다는 데서, 자기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한다는 인식을, (다)에서는 ‘포기하는 버릇’을 ‘내면화’하는 것과 ‘잔머리’를 굴려 ‘지레 포기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데 있어 방해가 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